

이슈보고서

산업경제팀

VOL.2023-경제이슈-1(2023.06)

산업별 對중국 수출 부진 요인 및 수출기업 체감 분석

CONTENTS

I. 분석배경

II. 對중국 수출 현황 및 부진요인

1. 연간 추이 현황
2. 물가 및 물량 영향
3. 산업별 부진 요인

III. 수출기업 체감 현황 및 전망

1. 설문조사 개요
2. 수출기업 체감도
3. 수출 감소 원인
4. 수출 회복 시기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6252-3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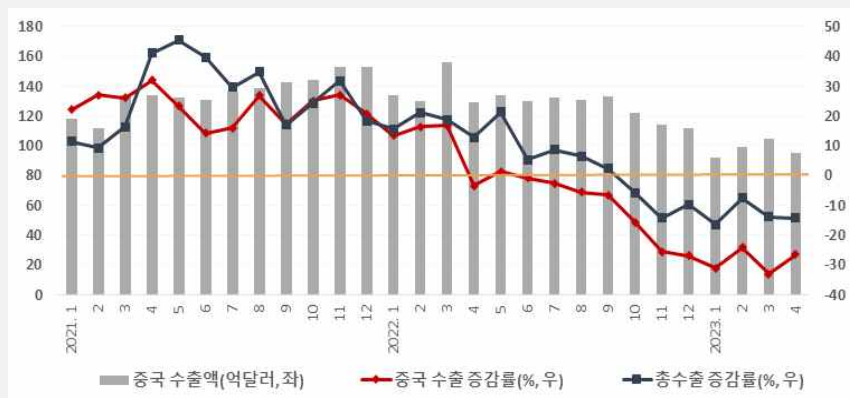


<요 약>

2023년 4월까지 對중국 수출액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 18년만에 최저

- 우리나라 총수출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이후 2021년부터 점차 회복되었으나, 2022년 2분기부터 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최근까지 우리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2022년 총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나 對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4.4% 하락했으며, 2023년 들어 對중국 수출 감소세는 더 심화돼 **2023년 4월까지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해 총수출이 13.1% 감소한 것을 크게 하회
- 對중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2004년(19.6%) 이후 18년만에 20%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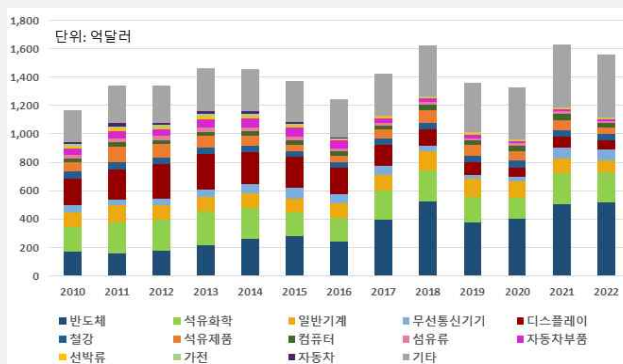
월별 對중국 수출액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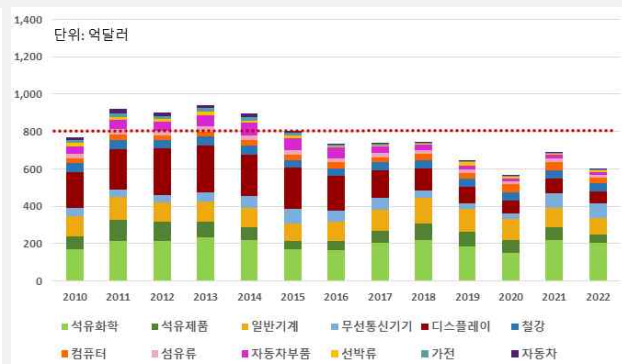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 수출 감소는 꾸준히 진행됐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착시가 발생해 변화상이 잘 파악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음.

13대 주요 수출 품목별 對중국 수출금액

(반도체 포함)



(반도체·기타품목 제외)



2022년 하반기 이후 중국 수출 부진, 산업별 원인 달라 회복 시기 전망 상이

-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의 산업별 중국 수출 부진 현황 및 유형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

산업	유형	중국 수출 부진 현황	전망
반도체	수출 단가 연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수출의 33.4% 차지(2022년), 비중 높아 착시 효과 유발. 수출 단가 변동에 크게 좌우 수출 물량 감소 요인보다는 단가 하락 요인으로 수출 부진. 2023년 수출 물량 회복 중 	반도체 단가 등 수출 물가 상승시 회복 가능
석유화학 / 석유제품	수출 단가 연동 및 중국산 대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수출 부진은 물량 감소도 일부 있지만 수출 물가 하락 요인 강 2022년 이후 중국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중국산 대체 압력도 높은 상황 	유가 등 수출 물가 상승시 일부 회복, 중국 설비능력 확대로 물량 감소 요인 존재
무선통신기기	중국 내수시장 지배력 축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 시장 지배력 축소 (한국 스마트폰 점유율 1% 내외) 2021~2022년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단기적으로 회복 요인 미약
자동차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브랜드 약진, 한국산 브랜드 점유율 2% 미만으로 하락 신에너지차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올해 폐지) 	
디스플레이	품목·생산기지 이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낮은 LCD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OLED로 품목 전환 중 OLED 세트기기 조립 공장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지역 변경 	단기적으로 회복 요인 미약
일반기계 등 기계류	경기의존 및 중국산 대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의존 성격이 강해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도 부진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도 동시에 이뤄짐. 	중국 경기 회복시 수출 일부 회복 가능

- 현재 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은 **산업마다 차별적 원인**이 존재해 회복 시기를 전망할 때에도 각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도체와 같은 수출 단가 연동형은 수출 물가가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나,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등과 같은 중국 내수 시장 지배력 축소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품목생산기지 이전형 등은 수출이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
- 일반기계 등과 같은 경기의존 및 중국산 대체형, 석유화학·석유제품과 같은 수출 단가 연동 및 중국산 대체형의 경우 중국 경기 회복, 유가 인상 등으로 일부 수출은 회복되겠으나 중국산 대체 속도에 따라 회복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임.

2022년 하반기 이후 중국 수출 부진, 산업별 원인 달라 회복 시기 전망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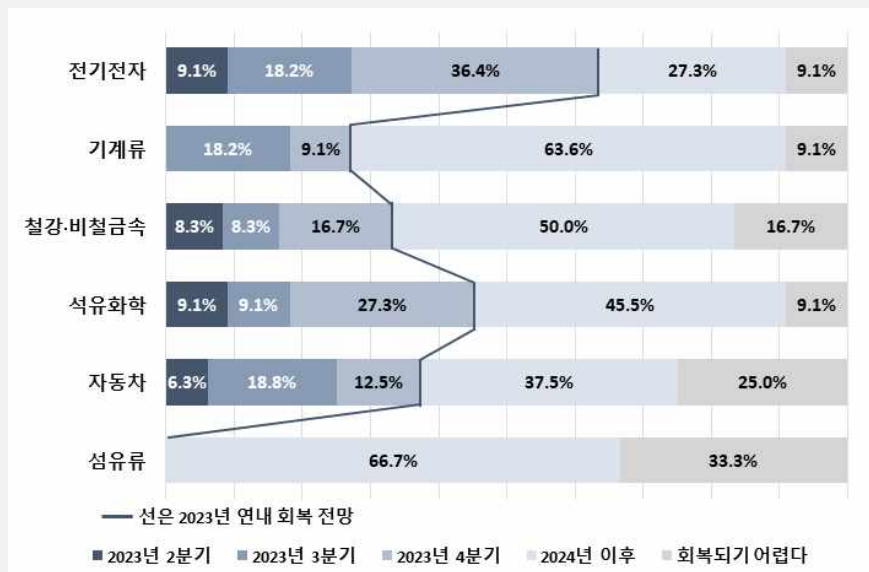
-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들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중국 수출 부진에 대해 대체로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과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영향**으로 등으로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은 연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기업 비중이 높았으나, 기계류, 섬유류 기업들의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 중국산 대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 부진 요인 및 전망 설문 결과

산업	중국 수출 부진 요인*		회복 시기 전망* (괄호 안은 연내 회복 전망 비율)
	2022년 하반기	2023년 1분기	
전기전자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2023년 4분기 (63.6%)
기계류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2024년 이후 (27.3%)
철강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가격 경쟁력 하락	2024년 이후 (33.3%)
석유화학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2024년 이후 (45.5%)
자동차 및 부품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2024년 이후 (37.5%)
섬유류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규제	2024년 이후 (0.0%)

* 설문조사 최다 응답 기준

주요 산업별 회복 전망 시기 설문 결과



I. 분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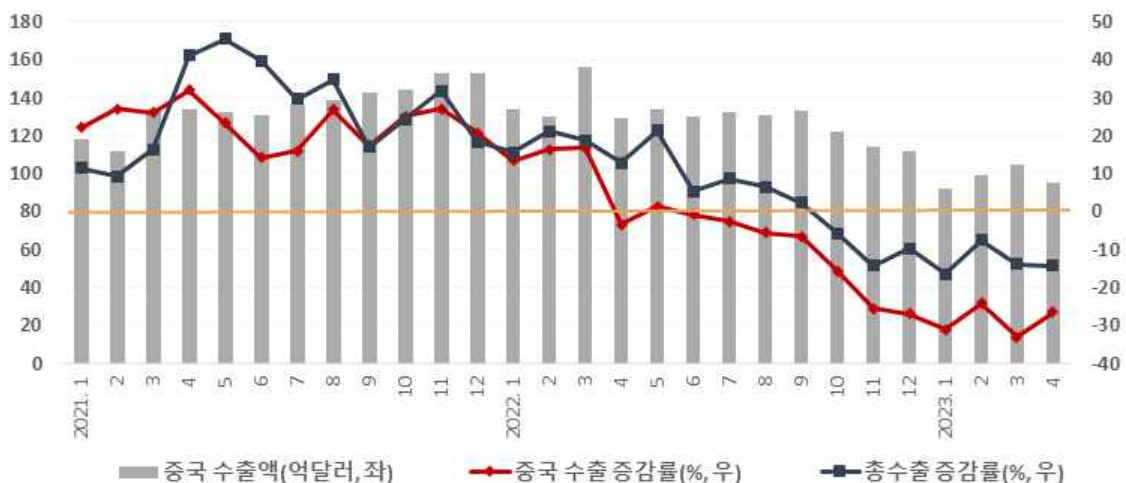
對중국 수출 현황 및 부진 요인, 수출기업 체감을 산업별로 분석해 향후 회복 시기 진단

- 우리나라 총수출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이후 2021년부터 점차 회복되었으나, 2022년 2분기부터 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최근까지 우리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對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중국 수출 회복 여부는 총수출 개선에 중요한 변수

* 총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 : 25.1('19) → 25.9('20) → 25.3('21) → 22.8('22)

- 2022년 이후 對중국 수출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및 리오프닝 효과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 미중 교역 분쟁 등으로 가속화된 수입 대체화, 소비력 부진 등으로 인한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되고 있는 상황
- 다양한 對중국 수출 부진 요인은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 회복 여부 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 원인을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현황과 부진 요인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체감 상황 등을 산업별로 분석해 향후 회복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함.

<그림1> 월별 對중국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Ⅱ. 對중국 수출 현황 및 부진 요인

1. 연간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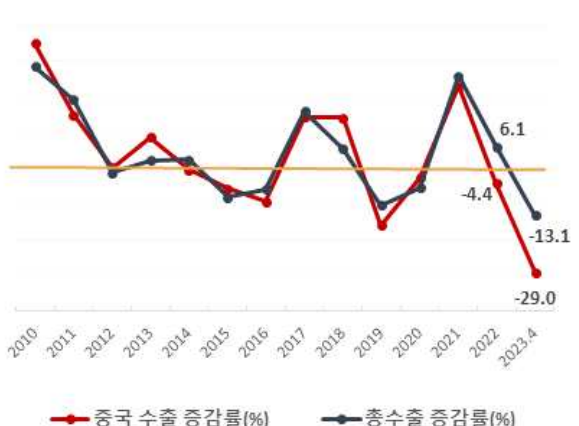
2023년 4월까지 對중국 수출액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5%, 18년만에 최저치

- 2010년 이후 對중국 수출액은 우리 총수출에서 24~27%를 유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1년까지도 전체 수출에서 25.3%를 차지하며 이전 수준을 유지해 옴.
- 對중국 수출이 총수출보다 감소율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총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나, 2022년 對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4.4% 하락
- 이에 따라 2022년 총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2.8%로 축소
- 2023년 들어 對중국 수출 감소세는 더 심화돼 2023년 4월까지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해 총수출이 13.1% 감소한 것보다 감소 폭이 더 크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줄어 2004년(19.6%) 이후 18년만에 20%를 하회
- 2023년 4월까지 총수출에서 중국 수출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은 -8.2%로 줄어들어, 현재 對중국 수출 부진이 총수출 위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그림2> 중국 수출액 및 비중



<그림3> 총수출 및 중국수출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2. 물가 및 물량 영향

최근 對중국 수출 부진에는 수출 물가 하락 요인과 수출 물량 감소 모두 반영

- 최근 對중국 수출 부진 현상에는 수출 물가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가 모두 반영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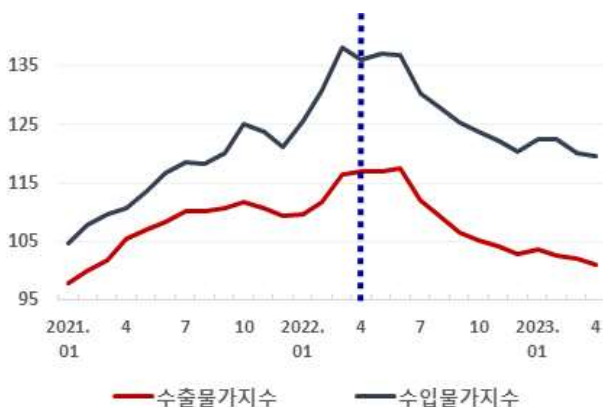
산업별로 어느 요인이 우위에 있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

- 對중국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수출금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
-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對중국 수출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는 추세
- 수출 물가의 경우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중국 수출액 감소에는 수출물가 하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5> 참고)
- 그러나 중국 수출 물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수출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 추세가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그림6> 참고)
- 다만, 수출 물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감소는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2분기 이후 감소폭을 줄이면서 물량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림4> 對중국 수출금액 및 증감률



<그림5> 수출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그림6> 對중국 수출물량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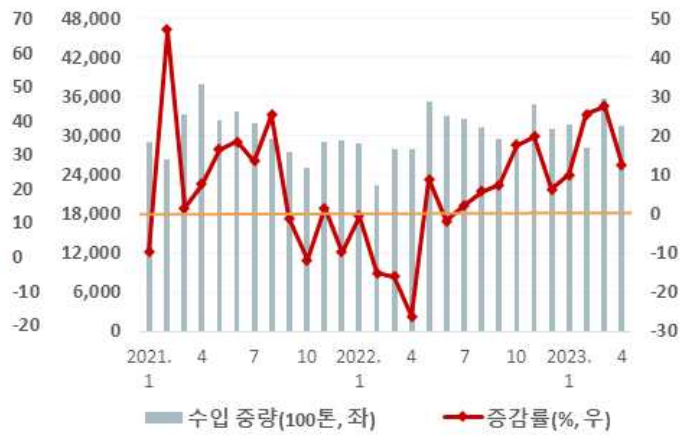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즉, 2022년 이후 對중국 수출액 감소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수출 물가 하락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물량 감소가 모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물가 영향이 아직은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對중국 수입액의 경우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수입 물량은 2022년 2분기 이후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어 수입에서는 물량보다는 단가 하락 요인이 더 두드러진 상황
- 수입 물가도 수출 물가와 동일하게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그림7> 중국 수입금액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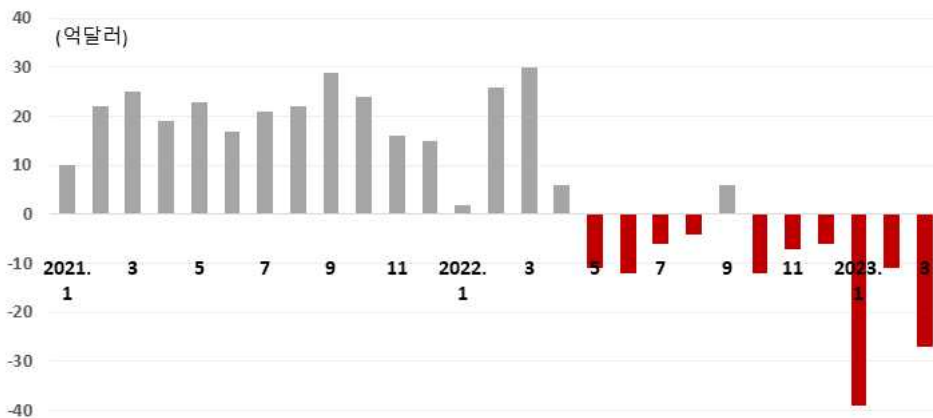
<그림8> 중국 수입물량 및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즉, 對중국 수출액은 물가, 물량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對중국 수입액은 물량은 회복됐지만 물가 영향만 남아 있어 이를 종합한 對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5월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림9> 對중국 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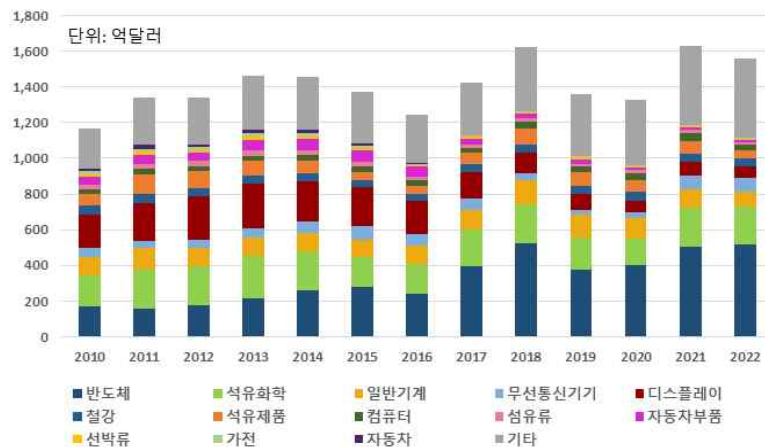
3. 산업별 부진 요인

가. 전체

2016년 이후 반도체 이외 산업에서 수출 감소 꾸준히 진행됐으나 반도체 호조로 착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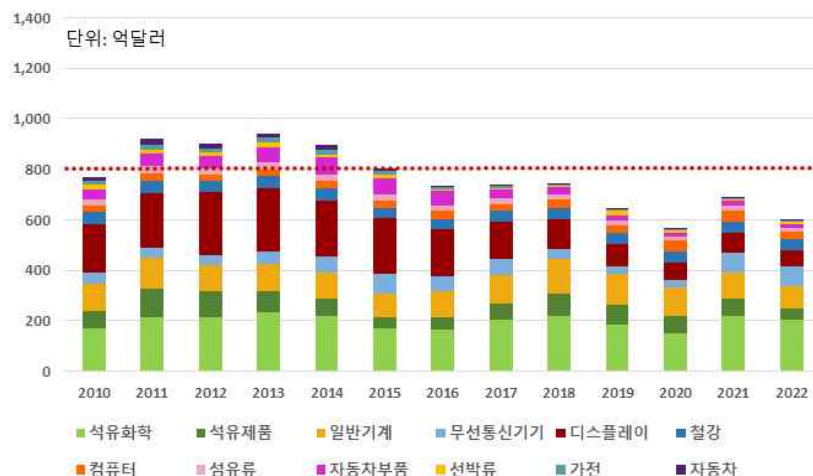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13대 주요 수출 품목별 중심으로 살펴보면 對중국 수출액은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석유류, 자동차 및 부품, 가전 등에서 대략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반도체 및 13대 주요 수출품목 이외 기타 품목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중국 수출액 감소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던 상황

<그림10> 13대 주요 수출 품목별 對중국 수출금액 : 반도체 포함



- 對중국 수출액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 12대 주요 수출품목 수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하락
- 연간 800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던 12대 수출 품목 수출액은 2016년 이후 80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

<그림11> 12대 주요 수출 품목별 對중국 수출금액 : 반도체·기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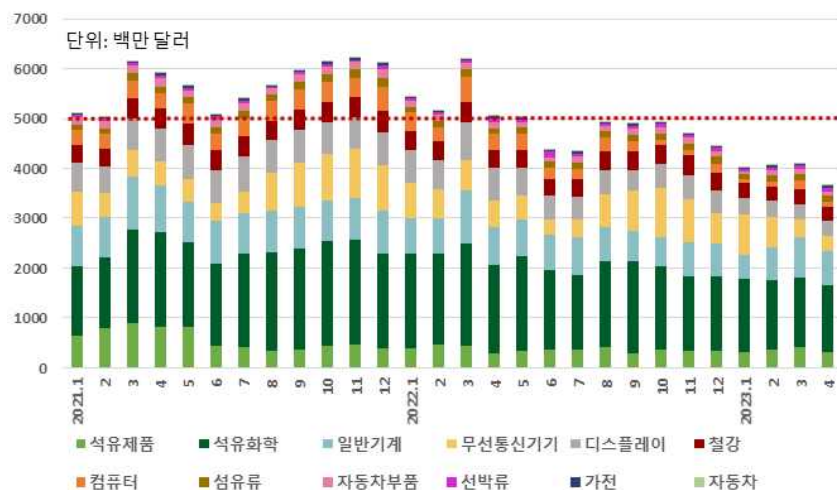
<표1> 13대 주요 수출 품목별 對중국 수출금액 (억 달러)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제품	컴퓨터	섬유류	자동차부품	선박류	가전	자동차	13대 품목 소계	기타	전체 합계
2010	172	171	106	47	191	46	68	25	28	40	17	15	16	942	227	1,168
2011	158	216	123	43	211	52	110	28	30	47	19	17	23	1,077	265	1,342
2012	179	217	105	40	247	44	100	25	28	49	13	16	15	1,078	265	1,343
2013	217	235	106	52	250	45	84	26	28	62	18	19	17	1,158	301	1,459
2014	262	220	99	64	224	48	70	31	26	67	12	19	18	1,158	295	1,453
2015	278	171	93	77	220	39	44	33	23	65	12	16	9	1,080	291	1,371
2016	242	167	102	63	185	41	46	30	21	57	5	10	1	971	273	1,244
2017	393	206	113	63	148	43	64	26	20	35	8	7	1	1,127	294	1,421
2018	522	218	135	41	116	45	91	35	19	30	5	6	0	1,263	358	1,621
2019	373	185	123	29	91	43	76	32	17	22	17	6	0	1,014	348	1,362
2020	399	153	115	30	68	46	65	41	16	16	6	5	0	960	366	1,326
2021	502	219	103	79	77	48	68	44	18	18	6	5	1	1,188	441	1,629
2022	521	207	87	75	64	45	44	31	15	14	7	5	1	1,117	441	1,558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최근 對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2022년 전후를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12대 품목의 월간 수출액이 대부분 50억~60억 달러를 유지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2022년 3월을 제외하고는 월간 50억 달러를 하회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그림12> 12대 주요 수출 품목별 對중국 수출금액 : 반도체·기타품목 제외, 월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따라서 현재 중국 수출 부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출 호조를 기록했던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분하는 한편, 현재 물량 감소와 물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물량 요인이 영향을 주는 품목과 물가 요인이 영향을 주는 품목** 등으로 구분해 산업별 부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나. 수출 단가 연동형

1) 반도체

2022년 하반기는 수출 물가 · 물량 모두 하락, 2023년 1분기는 물가 하락 · 물량 회복 중

- 對중국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7%에서 2022년 33.4%으로 두 배 이상 꾸준히 상승해, 전체 對중국 수출액의 추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큰 반도체 수출액과 그 이외의 수출액을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연간으로 비교할 때 반도체 수출물가지수(=수출단가지수)는 역대 최고의 반도체 호황이던 2017~2018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꾸준하게 하락**해 온 반면, 對중국 반도체 수출금액을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對중국 반도체 수출물량지수**(2015년=100)는 2010년 지수 29에서 2022년 지수 277까지 **꾸준하게 상승**
- 즉, 중국 반도체 수출금액이 2010년 이후 상승해 것은 반도체 단가보다는 **수출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그림13> 對중 반도체 수출금액: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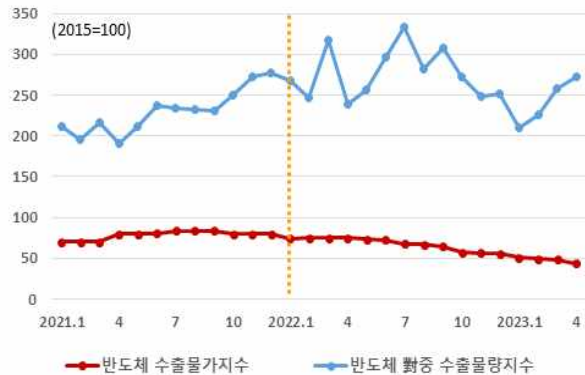
<그림14> 반도체 수출물가 및 對중 수출물량: 연간



<그림15> 對중 반도체 수출금액: 월간



<그림16> 반도체 수출물가 및 對중 수출물량: 월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중국 수출물량지수는 수출금액/수출물가로 산출

- 최근 對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2022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물량은 2022년 7월 이후 줄어들다가 2023년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
- 즉, 2022년 7월 이후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생산 가동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으나, 2023년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다시 반도체 수출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 반면, 2022년 이후 **반도체 수출물가는 꾸준히 하락해** 반도체 수출금액 하락폭은 더 확대됐으며, **2023년 이후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낮은 수출 물가** 탓에 회복세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 종합하면, 對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은 2022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하반기 이후 줄어들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회복 추세이지만, 낮은 수출 물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금액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보임.

다. 수출 단가 연동 및 중국산 대체형

1) 석유화학·석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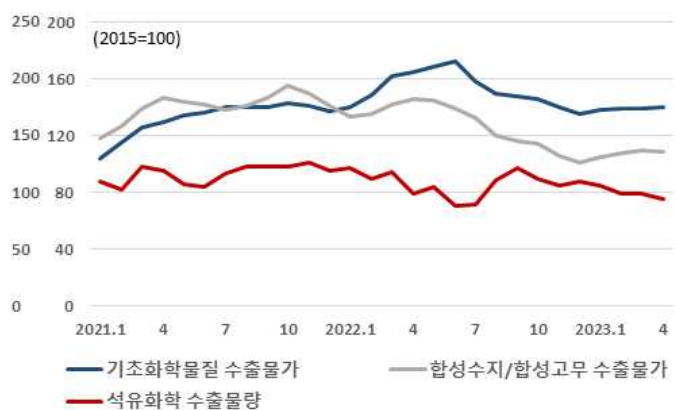
수출 물가 하락 · 중국 설비 증대로 인한 대체 영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석유화학·석유제품

-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물가 하락이 큰 품목이라 수출물가와 수출물량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

<그림17> 석유제품 수출물가 및 중국 수출물량



<그림18> 석유화학 수출물가 및 중국 수출물량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중국 수출물량지수는 수출금액/수출물가로 산출,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원유정제처리제품 수출물가 적용, 석유화학 수출물량 산출에는 기초화학물질과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출물가의 평균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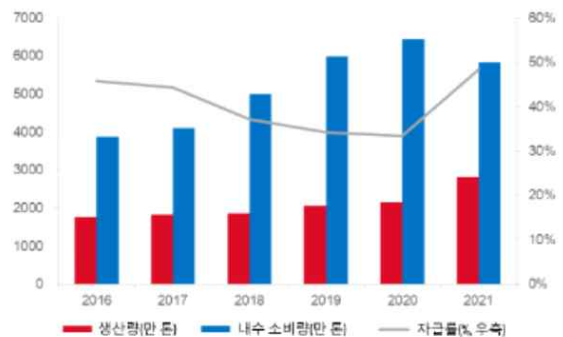


- 석유제품의 경우 제로코로나 정책이 높게 유지되던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물량이 크게 감소했고,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 물량이 소폭 회복되고는 있지만 2021년 상반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수출 물량 감소 효과는 2021년에 더 컸으며, **2022년 수출액 감소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가 하락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석유화학의 경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수출 물량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 수출 물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해** 최근 수출액 감소에는 수출 물가 하락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즉,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수출 물가 하락 영향이 최근 수출액 감소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석유화학의 경우 최근 **중국이 설비 증설을 가속화하며** 자급률을 빠르게 높이고 있어 **물량 감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국내 석유화학 최대 수출시장으로 석유화학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38% 수준
- 현재 중국은 **석유화학 원료의 자급률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설비를 증설**하는 한편 가동률도 높이고 있는 상황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까지 중단기적 석유화학산업 목표에 따르면 중국은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 화학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설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 중국 석유화학 중장기 육성방안인 '석유화학 업종의 질적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에는 2025년까지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생산 규모를 900만 톤가량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2021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capacity)은 4,368만톤(생산량은 2,826만톤, 가동률 65% 수준),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은 5,832만톤**이어서 해당 계획이 달성될 경우 중국은 에틸렌 자급률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에틸렌 생산능력 1위 국가로** 올라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됨.
- 2021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capacity)은 4,368만톤으로 1위인 미국(4,427만톤)과 격차가 59만 톤에 불과한데, 2022년 중국 기업의 에틸렌 증설 물량이 약 565만톤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미 생산능력으로는 2022년 기준 연간 5,000만톤에 육박해 세계 최대 에틸렌 생산능력 보유국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23년부터 3년간 중국 기업이 완공할 에틸렌 증설 물량이 약 1,775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중국의 생산능력은 더 늘어날 전망

<그림19> 에틸렌 생산능력 TOP10 국가 (2021년 기준)



<그림20> 중국 에틸렌 수급 동향



자료: Oilchem(隆衆咨訊), 중국 국가통계국, CPCIF, 동하이증권연구소, KOTRA 베이징무역관에서 재인용

<표2> 2023~2025년 완공 예정인 중국 기업 에틸렌 생산기지

구분	기업/프로젝트	지역	에틸렌 생산능력 (만톤/년)	완공시기
민영	싼장화공	저장 자싱	125	2023년
	바오핑 에너지 3기	닝샤 인촨	50	2023년
	산둥 위룽 석유화학	산둥 엔타이	300	2024년
국유	시노펙 난강	텐진	120	2023년
	산시석탄그룹	산시 위린	100	2023년
	화진 석유화학	랴오닝 판진	150	2024년
	중커렌화 2기	광둥 잔장	120	2024년
	시노펙 웨양지사	후난 웨양	150	2024년
	시노펙 광시지사	광시 친저우	120	2024년
	시노펙 다렌지사	랴오닝 다렌	120	2024년
	시노펙 지린지사	지린	80(증설)	2024년
	시노펙 뤼양석화	허난 뤼양	100	2025년
	광터우 석화	광시 친저우	60	-
	쓰촨에너지투자	광시 하이베이	60	-
	페트로차이나 창칭2기	산시 위린	120	2026년
합계			1,775	

자료: 페트로차이나 경제기술연구원,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인용

- 중국 설비 증설 영향으로 2020년 30% 수준이었던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2021년 50% 수준으로 향상됐으며(<그림 20> 참고), 2022년 이후에는 자급률이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돼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한국의 석유화학 수출 물량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

라. 중국 내수시장 지배력 축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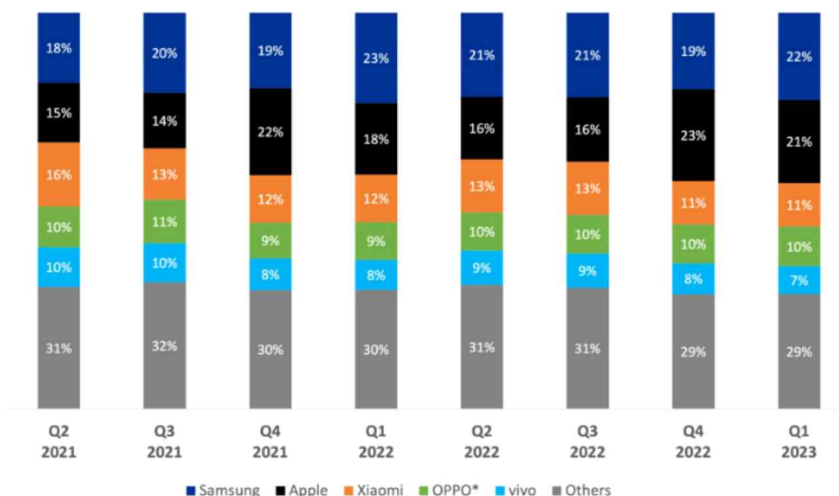
1) 무선통신기기

중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 62%, 한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 1% 내외인 무선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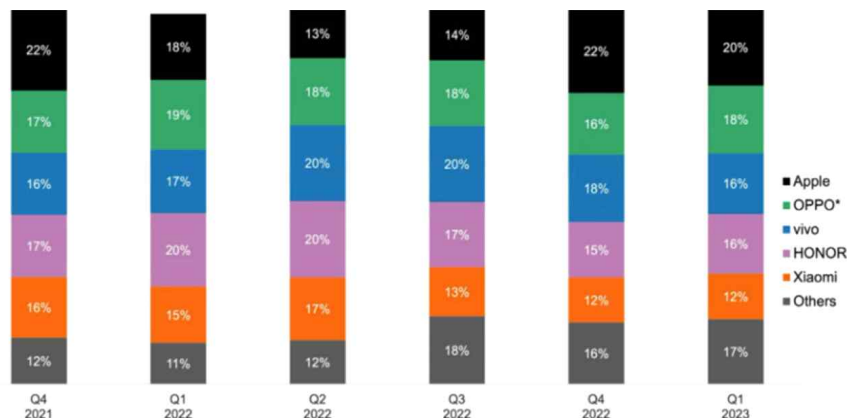
-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산 스마트폰은 3위 샤오미(11%), 4위 오포(10%), 5위 비보(7%) 등 약 2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중국 시장에서 1위는 미국의 애플(20%)이지만, 2위 오포(18%), 3위 비보(16%), 4위 아너*(16%), 5위 샤오미(12%) 등 중국산 제품이 2위에서 5위까지 약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비중은 1% 내외

* 아너(HONOR)는 2020년 4분기부터 화웨이에서 독립한 브랜드로 과거에는 화웨이로 집계됨.

<그림21>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1년 2분기~23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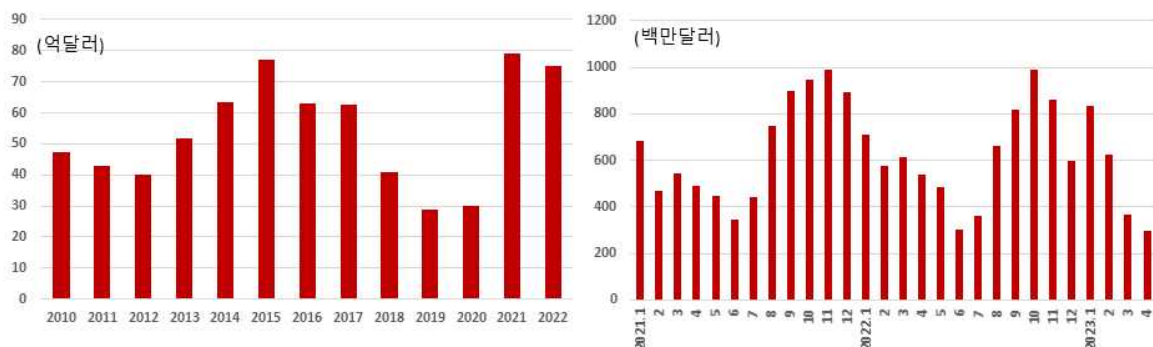
<그림22>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1년 4분기~23년 1분기)



자료: 카운터포인트 마켓 모니터 서비스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아졌으나, 2021~2022년 코로나19 영향, 신규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출액이 그 이전보다 높아졌던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월간 수출액 변동이 큰 품목이라 최근에도 월간 기준으로는 간헐적으로 높은 수출액을 올리기도 함.
- 이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의 **최근 수출 감소는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23> 무선통신기기 연간 및 월간 對중국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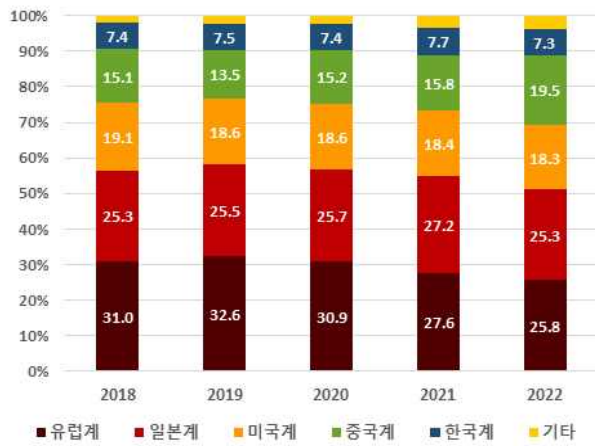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2)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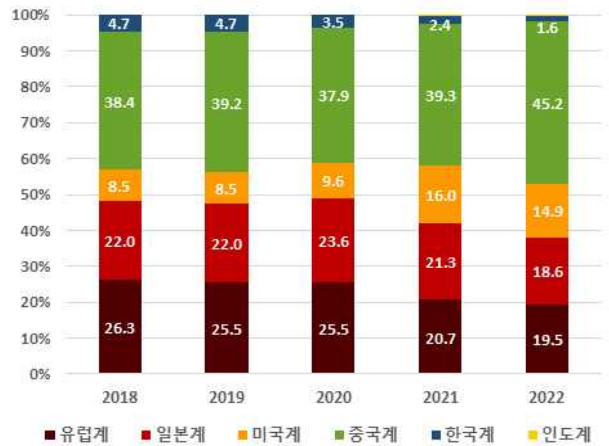
전기차 중심으로 성장한 중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 45.22%, 한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 1.6%

- 자동차의 경우 세계 시장 국가별 브랜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유럽계 25.8%, 일본계 25.3%, 중국계 19.5%, 미국계 18.3%, 한국계 7.3%로 중국이 3위, 한국이 5위 수준
-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한국 업체들의 두 배 이상인 상황이며,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해 2022년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3위 기록
-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 2022년 기준 중국계 45.2%, 유럽계 19.5%, 일본계 18.5%, 미국계 14.9%, 한국계 1.6% 순으로 집계
- 중국 업체들은 과거 중국 내수시장에서 30% 후반대를 유지해 왔으나, 전기차 전문인 BYD를 비롯해 체리, GAC 등과 같은 로컬 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2022년 시장 점유율을 45.2%까지 확대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자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
- 2022년 유럽계 브랜드는 고급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으며, 일본계 브랜드는 토요타 외에는 감소했고, 미국계 브랜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등 중국에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종을 중심으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신에너지차(전기차, 수소차 등) 구매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중국 업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

<그림24> 세계 자동차 시장 국가별 점유율



<그림25> 중국 자동차 시장 국가별 점유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Marklines, LightVehicle 기준)

- 한국 브랜드들은 2017년 한한령 이후 중국 내에서 선호도가 크게 하락한 데에다, 동 기간 중국 브랜드들이 크게 부상하고, 2021~2022년에는 반도체 수급 영향까지 더해져 시장점유율이 2022년 1.6%까지 떨어짐.
- 현대차 그룹은 과거 중국에 8개 승용차 공장(현대차는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4공장, 충칭 5공장 등 5개, 기아는 옌청에 1~3공장 3개) 및 1개의 상용차 공장(현대 쓰촨)을 보유했었으나, 중국 내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3년 6월 현재 현대차는 베이징 2개, 기아차 2개 등 총 4개 승용차 공장과 현대차 1개 상용차 공장만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
- 2021년에 현대차 베이징 1공장, 기아 옌청 1공장을, 2022년에 충칭 공장의 가동을 각각 중단했고, 2023년 4월 창저우 공장도 가동 중단 결정
- 對중국 자동차 관련 수출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중국 내 브랜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현재 부품 수출도 크게 하락한 상황
- 對중국 수출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크지 않으며, 감소 추세 역시 중국시장 내 선호도 하락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26> 자동차 및 부품 연간 및 월간 對중국 수출 추이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마. 품목 및 생산기지 이전형

1) 디스플레이

기존 LCD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OLED 중심으로 품목 전환, 베트남 등으로 수출지 변경

-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은 '04년부터 '20년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지켜왔으나, '21년부터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어주기 시작해, '22년 현재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5.6%p
- '22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42.5%, 한국 36.5%, 대만 18.2% 순

<표 3> 국가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국	21.0	25.0	30.9	36.7	41.3	42.5
한국	44.4	42.6	40.4	36.8	33.3	36.9
대만	22.9	24.5	21.9	22.5	23.1	18.2
일본	10.8	6.7	5.9	3.6	1.9	2.1
기타	0.9	1.2	1.0	0.5	0.4	0.3

<그림27> 한중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디스플레이 산업은 과거 주력이었던 LCD와 현재 성장하고 있는 OLED*로 구성되는데, 중국은 LCD 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시장 확대를 펼쳐 현재 세계 LCD 시장 점유율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디스플레이 생산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LCD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비중 : ('20) 24.5% → ('21) 27.3% → ('22) 34.3%

- '22년 세계 LCD 시장 국가별 점유율 : 중국 55.5%, 대만 27.6%, 한국 13.5%, 일본 2.9% 순
- 한국의 경우 전략적으로 LCD 생산을 축소하고 고가인 OLED로 생산을 전환해 OLED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 삼성디스플레이는 '16년부터 LCD 사업 철수를 시작해 '22년 6월 생산을 종료했고, LG디스플레이도 '22년부터 국내 TV용 LCD 생산을 중단하는 등 국내 대형 업체들은 대부분 OLED 중심으로 사업 전환 중
-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LCD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중국산 LCD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고부가가치 TV용 대형 OLED 분야에서 유일하게 양산기술을 보유하는 등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소형 OLED 중심으로 빠르게 추격 중
- '22년 세계 OLED 시장 국가별 점유율 : 한국 81.3%, 중국 17.9%

<그림28> 디스플레이 세부 품목별 對중국 수출 추이 : 월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22년 한국의 OLED 수출액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53억 달러이며, 국가별 수출 비중은 베트남 77%, 중국 17%, 인도 1% 등
- '17년의 경우 OLED 수출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지만, 중간재인 디스플레이 패널은 최종 세트기기 생산공장이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형태가 많아 최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최종 수출지역이 전환되고 있음.

<표4> 한국 OLED 국가별 수출 현황

구분		전체	베트남	중국	멕시코	인도
수출금액 (비중)	2017년	9,330 (100%)	4,802 (51%)	3,488 (37%)	355 (4%)	9 (0%)
	2022년	15,305 (100%)	11,830 (77%)	2,610 (17%)	196 (1%)	167 (1%)
연평균 증가율('17~'22)		10.4% ↑	19.8% ↑	△5.6% ↓	△11.2% ↓	79.3% ↑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단위: 백만달러)

- 즉, 국내 대형업체들의 LCD 생산 종료로 對중국 LCD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OLED의 경우 세트기기 생산기지가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면서 수출지가 변동돼 OLED 對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빠르게 기술 추격을 해오고 있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으로의 대체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바. 경기 의존 및 중국산 대체형

1) 일반기계 · 정밀기계

산업경기·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정밀기계·기계장비 등에선 대체 압력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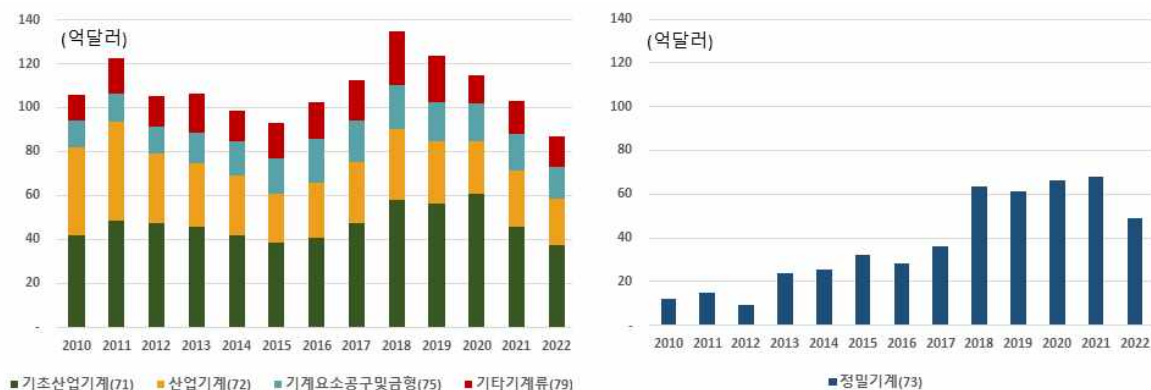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일반기계는 기초산업기계(MTI 코드 71), 산업기계(72),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75), 기타기계류(79)로 구성
- 일반기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밀기계(73)의 경우 반도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을 포함하면서 최근 對중국 수출액 비중이 늘어난 상태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

<표5> 기계류 수출 품목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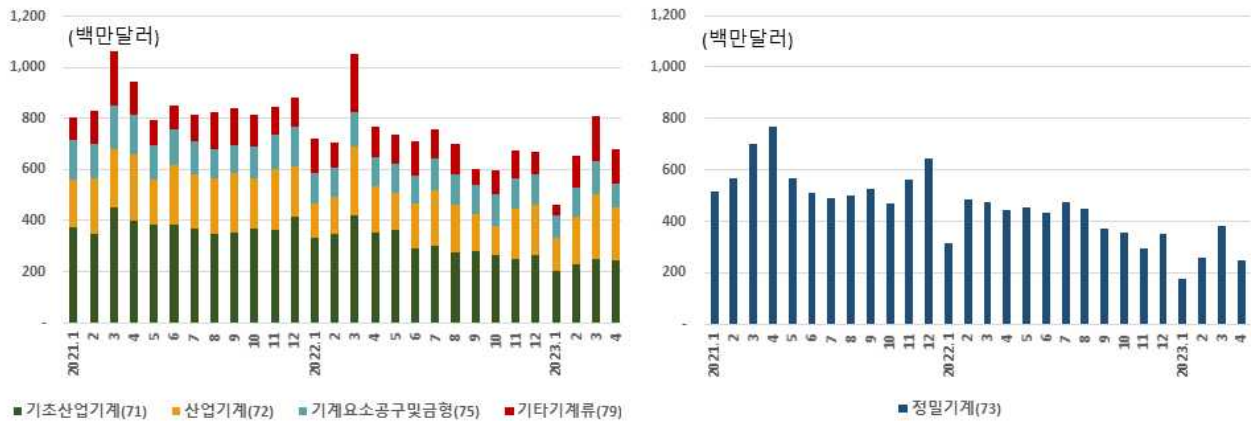
분류		MTI 코드	세부 품목
일반기계	기초산업기계	71	원동기 및 펌프, 운반하역기계,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기, 사무기기, 광학기기
	산업기계	72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섬유 및 화학기계,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식품가공포장기계,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제지인쇄기계, 농기계, 기타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75	기계요소(볼트, 너트, 베어링 등), 공구, 금형
	기타기계류	79	기타기계류(부품)
정밀기계		73	시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용기기, 설계제도기, 토지측량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 일반기계 가운데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은 기초산업기계의 원동기 및 펌프, 산업기계의 건설광산기계와 금속가공기계 등으로 동 품목들은 산업 경기 및 건설 경기에 따라 수요 변동
- 정밀기계에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비중이 높아 동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동 품목의 수출도 함께 늘어남.
- 對중국 일반기계 수출은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정밀기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크게 증가한 뒤 2022년에 감소로 전환된 상태

<그림29> 일반기계 및 정밀기계 세부 품목별 對중국 수출 추이 : 연간



<그림30> 일반기계 및 정밀기계 세부 품목별 對중국 수출 추이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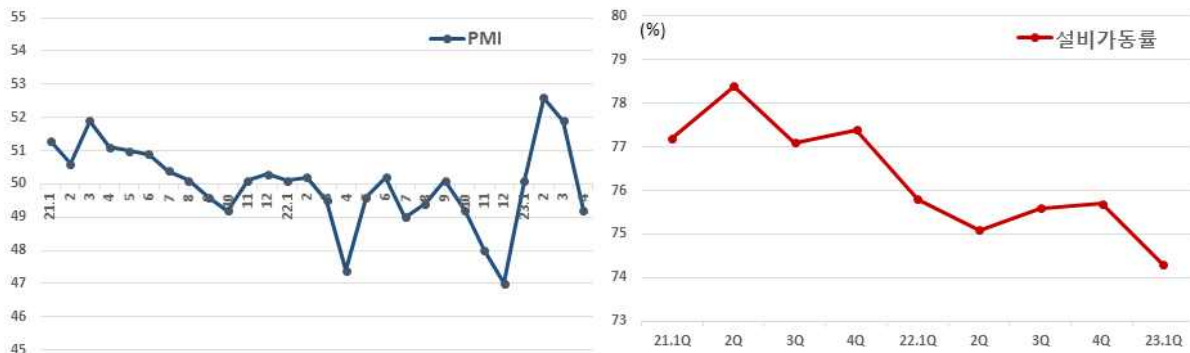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기초산업기계 및 정밀기계, 산업기계 중 금속공작기계의 경우 전체 산업 경기 영향이 크고, 산업기계 중 건설광산기계의 경우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영향이 커 2021년 이후 기계류 수출 감소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선 중국 내 두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그림31>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및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그림32> 중국 PMI 지수 및 설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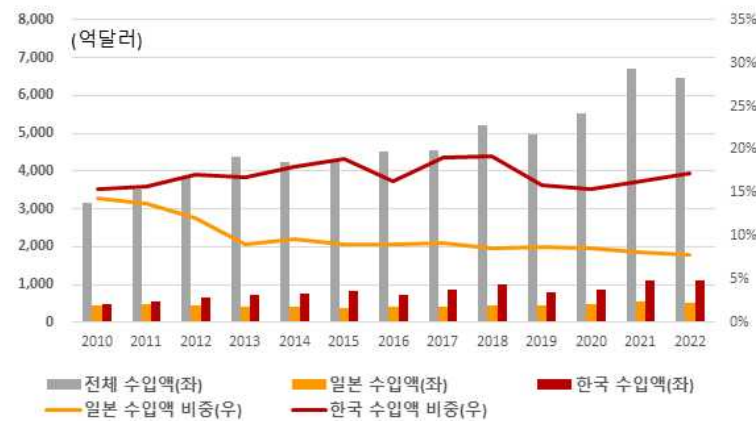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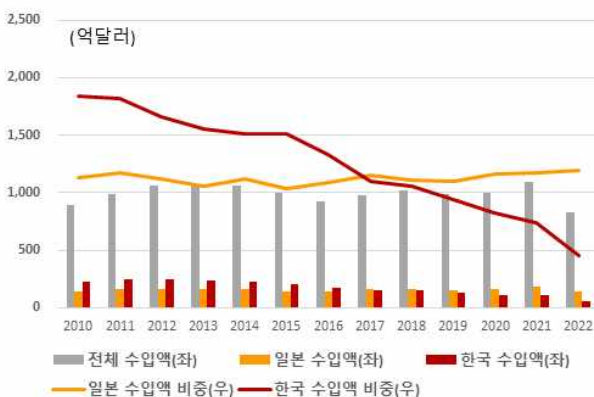
주 : 고정자산 및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1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발표되는 수치를 당월 기준으로 변환

-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한 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상태(<그림26> 참고)이나, **PMI 지수***나 **설비가동률**은 제로코로나 정책 여파로 2022년 수치가 2021년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해 **산업 경기는 2021~2022년 모두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자관리지수)** :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가격, 고용현황 등을 조사한 뒤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 수축 의미
- PMI 지수는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된 2023년부터 크게 개선됐으나 4월 다시 하락
-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하락 폭을 더 확대시키고 있어 현재 **중국 내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태**임을 나타냄.
- 즉, **2021~2022년 중국내 산업 경기 및 부동산 경기는 매우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련 투자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기계 및 장비 수출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기계류는 현재 중국이 빠르게 기술 추격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는 측면에서 **중국산 품목에 의한 대체로 우리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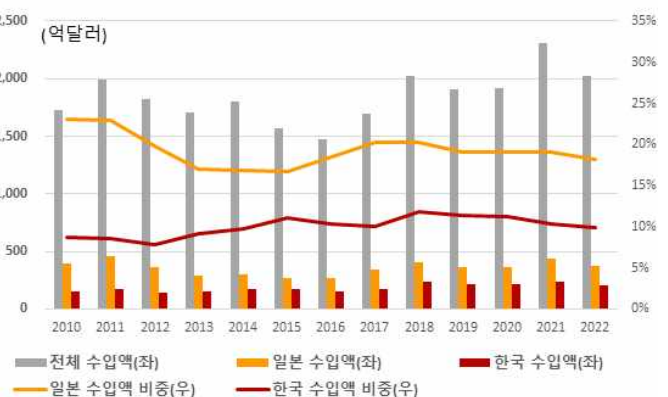
<그림33> 중국 전기·전자 기계 및 부품(HS 85) 수입



<그림34> 중국 정밀기계(HS 90) 수입



<그림35> 중국 기계장비 및 부품(HS 84) 수입



자료: WTO, 무역협회 무역통계

-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기계 관련 수입액¹⁾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2021년 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 2022년 소폭 하락한 상태
- 전기·전자기계 및 부품(HS코드 85)의 경우 **한국산 수입 비중**은 2018년 19.2%에서 소폭 하락 하기는 했으나, **2020년 15.4%, 2021년 16.3%, 2022년 17.2%** 등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오고 있어 한국 수입 비중이 떨어졌다고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정밀기계(HS코드 90)의 경우 2010년 이후 전체 수입액의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한국산 수입 비중**이 **2010년 25.7%에서 2020년 11.6%, 2021년 10.4% 2022년 6.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동 분야에서 **대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
- 반면 일본산 수입액은 비교적 고르게 유지되며 비중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산 수입 품목에서 대체가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계장비 및 부품(HS코드 84)의 경우 **한국산 수입 비중**이 **2018년 11.8%**로 고점을 찍은 뒤 **2019년 11.4%, 2020년 11.2%, 2021년 10.3% 2022년 9.9%**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 대체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 동 분야에서 일본 수입 비중도 2018년 20.2%를 기록한 뒤 2019년 19.1%, 2020년 19.1%, 2021년 19.1%, 2022년 18.2%로 소폭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에서도 수입 대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對중국 기계 수출**은 코로나19 및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내 경기 부진 영향으로 2021~2022년 감소한 측면도 존재**하나, 2010년 이후 중국 내 기계 분야 일부 품목에서는 **꾸준한 수입 대체**가 이뤄지고 있어 **한국산 기계 수입이 감소한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중국의 품목별 수입 통계는 HS코드 기준으로 집계돼 우리나라 무역통계인 MTI 코드별 집계와 품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비교를 위해 연계가 가장 높은 전기전자 기계 및 부품(HS코드 85), 정밀기계(HS코드 90), 기계장비 및 부품(HS코드 84)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우리나라 일반기계와 가장 많은 품목을 공유하는 분야는 기계장비 및 부품(HS코드 84)으로 볼 수 있음.

Ⅲ. 수출기업 체감 현황 및 전망

1. 설문조사 개요

- 현재 중국 수출기업들의 수출 감소 체감도와 회복 시기 등을 파악하기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설문 진행
- 산업별로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수출 감소 체감도를 비교하고, 회복 시기를 전망
- 설문 분석 대상 : 중국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249개사 (대기업 28, 중소기업 221)
- 자동차 및 부품(52), 석유화학(50), 전기전자(45), 기계류(42), 철강·비철(33) 등 11개 수출 업종
- 설문 기간 : 2023. 4. 3 ~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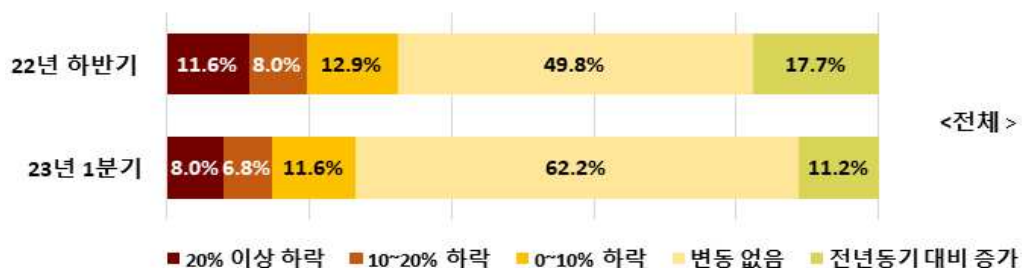
2. 수출기업 체감도

가. 전체 기업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수출액이 감소한 기업 비중, 22년 하반기 32.5%, 23년 1분기 26.5%

- 중국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중국 수출액의 전년동기 대비 수준을 물은 결과, 12.9%가 0~10% 감소, 8.0%가 10~20% 감소, 11.6%가 20% 이상 감소를 답해 중국 수출기업의 32.5%가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
- 응답 기업 가운데 49.8%는 변동 없음을, 17.7%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답해,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67.5%는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를 체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질문을 2023년 1분기 수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 11.6%가 0~10% 감소, 6.8%가 10~20% 감소, 8.0%가 20% 이상 감소를 답해 중국 수출기업의 26.5%가 전년동기 대비 수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수출 감소 비율이 6.0%p 하락
- 응답 기업 가운데 62.2%는 변동 없음을, 11.2%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답해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73.5%는 2023년 1분기 수출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수출 감소 체감이 낮아짐.

<그림36> 중국 수출 기업 수출액 변화 체감 현황 : 전체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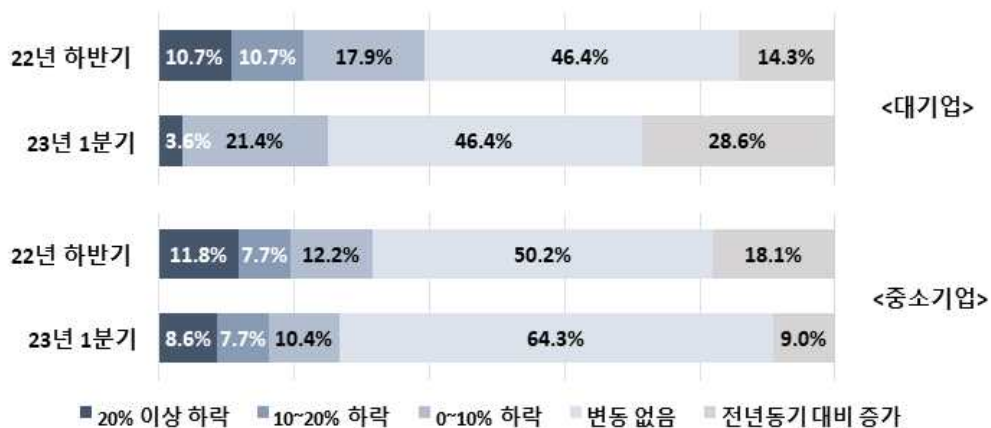
- 수출 감소 비율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는 0~10% 감소한 기업이 12.9%로 가장 많고,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11.6%로 두 번째, 10~20% 감소한 기업이 8.0%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으며, 2023년 1분기에도 이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돼 전년동기 대비 **0~10%의 수출 감소를 겪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전체 중국 수출액은 하락하고 있으나, **산업 및 수출 분야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출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개별 중국 수출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일부만 수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기업 규모별

22년 하반기에는 대기업이, 23년 1분기에는 중소기업이 수출 감소를 더 체감

- 2022년 하반기에는 대기업에서 수출 감소를 더 경험했고, 2023년 1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에서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를 경험한 기업은 39.3%, 2023년 1분기 수출 감소 기업은 25.0%인 반면, 중소기업은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기업 31.7%, 2023년 1분기 26.7%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를 더 빨리 경험했지만 **2023년 1분기 수출 회복 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변동이 없다는 비율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에 46.4%로 동일한 가운데, 수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했다는 비율이 2022년 하반기에는 14.3%, 2023년 1분기에는 28.6%로 나타나 2023년 1분기 수출 회복에 더 빠르게 접근

<그림37> 중국 수출 기업 수출액 변화 체감 현황 : 기업 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국 수출 감소를 체감하는 비율은 2023년 1분기에 대기업보다 더 늘어났으며, 수출 증가 비율도 축소
- 중소기업의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비율은 31.7%로 대기업(39.3%)에 비해 7.6%p 낮았으나,

2023년 1분기에는 26.7%로 대기업(25.0%)보다 1.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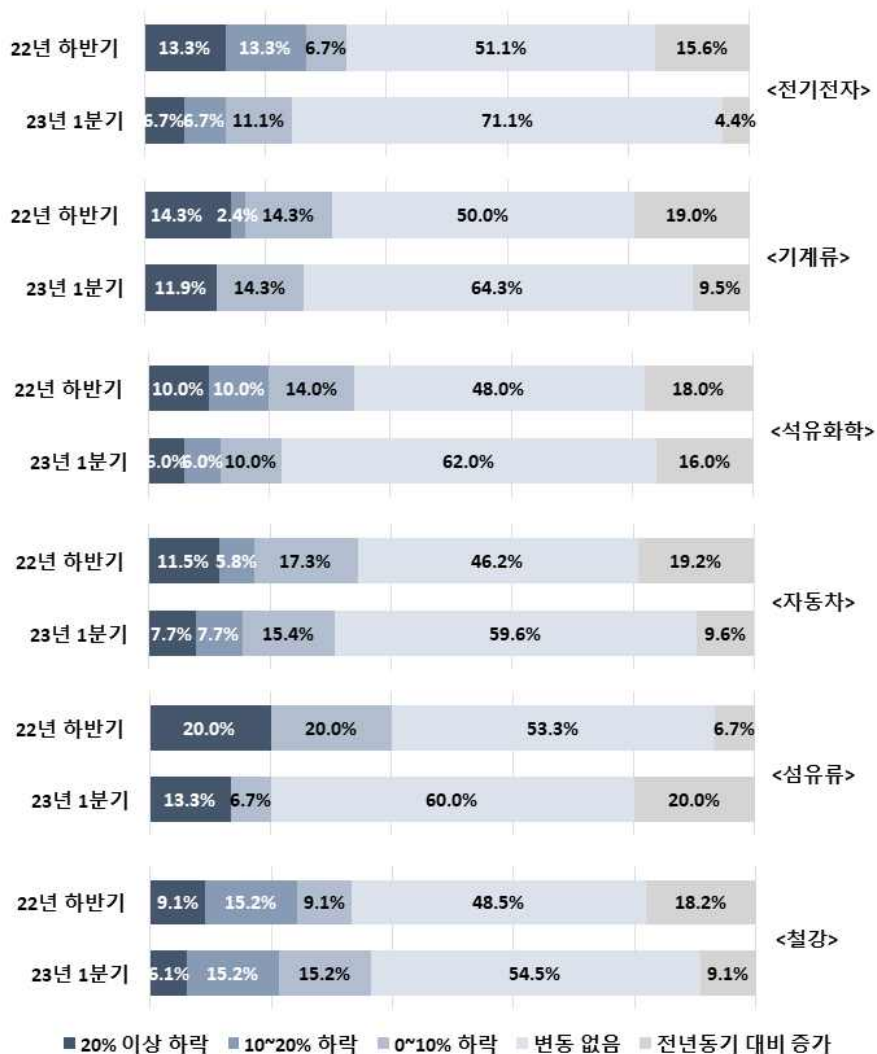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중소기업 비율도 2022년 하반기 18.1%에서 2023년 1분기 9.0%로 감소했으며 대기업(28.6%)에 비해 19.6%p 낮음.

다. 산업별

2022년 하반기에는 섬유류 · 자동차 · 석유화학, 2023년 1분기에는 철강 · 자동차 · 기계류 수출 감소 비율 높아

- 대부분의 산업에서 2022년 하반기에 비해 2023년 1분기에 수출 감소 기업이 줄어들었으나, **철강 산업에서는 2023년 1분기에 수출 감소 기업이 더 증가**
- 철강 산업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은 33.3%였으나, 2023년 1분기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은 36.4%로 증가

<그림38> 중국 수출 기업 수출액 변화 체감 현황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2022년 하반기에는 **섬유류, 자동차(부품 포함),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2023년 1분기에는 **철강, 자동차, 기계류** 산업에서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이 높아짐.
-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기업 비율은 섬유류 40.0%, 자동차(부품 포함) 34.6%, 석유화학 34.0%, 전기전자 및 철강 33.3%, 기계류 31.0% 순
- 2023년 1분기 수출 감소 기업 비율은 철강 36.4%, 자동차 30.8%, 기계류 26.2%, 전기전자 24.4%, 석유화학 22.0%, 섬유류 20.0% 순으로 변화
- 2022년 하반기에 비해 2023년 1분기 수출 회복이 빠른 분야는 **섬유류 및 석유화학** 산업
- **섬유류**는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이 40.0%였으나 2023년 1분기에는 동 비율이 20.0%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 응답 비율도 6.7%에서 20.0%로 세배 증가
- **석유화학**도 2022년 하반기 수출 감소 응답 비율이 34.0%였으나 2023년 1분기에는 동 비율이 22.0%로 줄어드는 등 회복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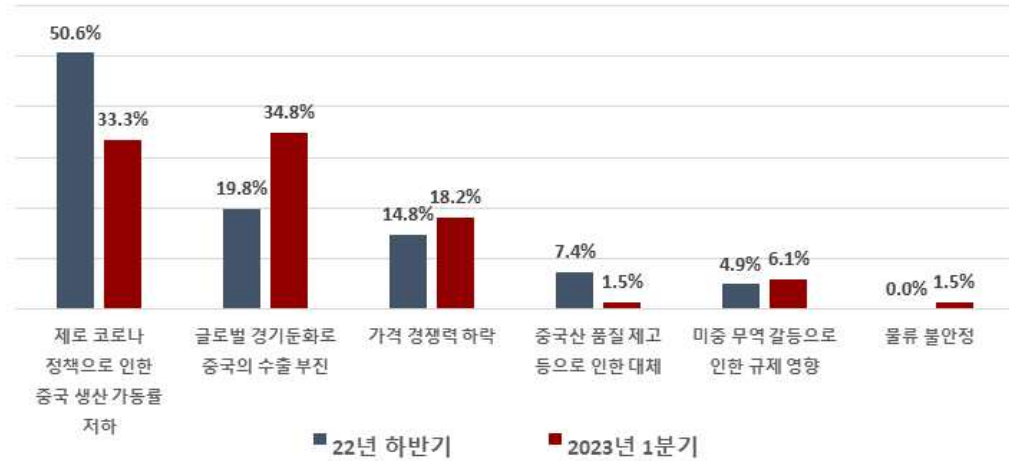
3. 수출 감소 원인

가. 전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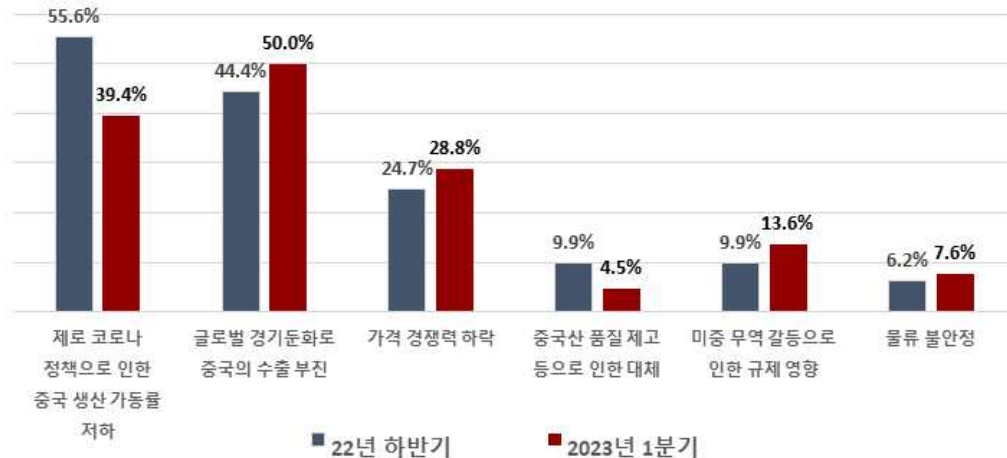
2022년 하반기는 제로코로나 영향, 2023년 1분기는 글로벌 중국 수출 부진이 수출 감소 요인

- 중국 수출 기업들은 수출 감소 원인 1순위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수출 부진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생산 가동률 저하”를 50.6%,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을 19.8% 순으로 응답해 2022년 하반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
- 1+2순위 합계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생산 가동률 저하”를 55.6%,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을 44.4% 순으로 응답
-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1순위로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을 34.8%,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생산 가동률 저하”를 33.3% 순으로 답해 2023년 1분기에는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응답
- 1+2순위 합계로도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을 50.0%,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생산 가동률 저하”를 39.4% 순으로 응답
-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중국산 품질 제고 등으로 인한 대체” 응답은 2022년 하반기 감소 원인으로 각각 14.8%, 7.4% 응답하고, 2023년 1분기 감소 원인으로서는 각각 18.2%, 1.5%로 답해 수출기업들은 중국산 품질 제고에 의한 대체보다는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규제 영향”은 2022년 하반기(4.9%)에 비해 2023년 1분기(6.1%)에 더 늘어난 것으로 답해 향후 중국 수출 감소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39>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순위) : 전체 기업



<그림40>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순위 + 2순위) : 전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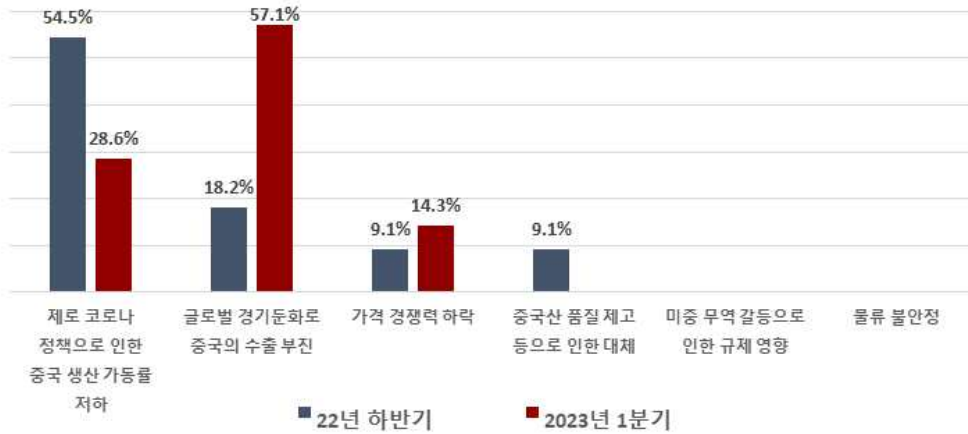
나. 기업 규모별

대기업은 “중국의 수출 부진 영향”을, 중소기업은 “제로코로나 정책” 외 다양한 원인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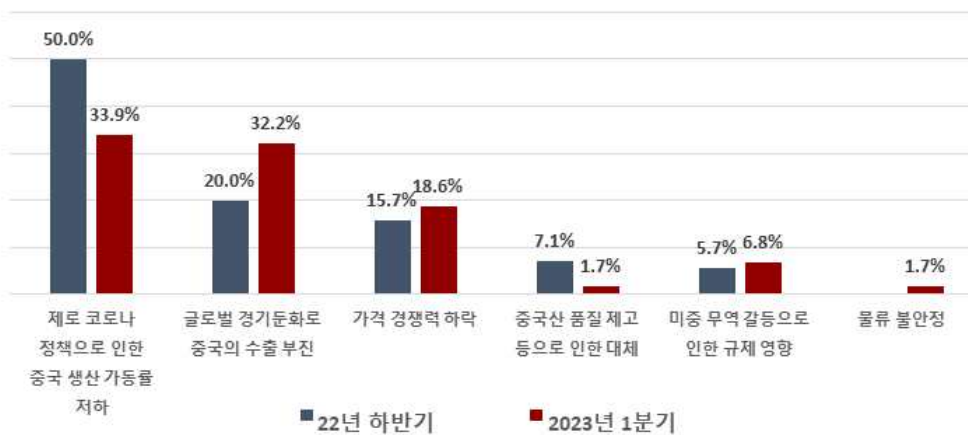
- 2022년 하반기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응답에 큰 차이가 없으나,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을 57.1%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생산 가동률 저하”(33.9%)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32.2%)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
- 이밖에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한 응답도 중소기업(18.6%)이 대기업(14.3%)보다 높고,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도 중소기업에서만 응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1>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순위) :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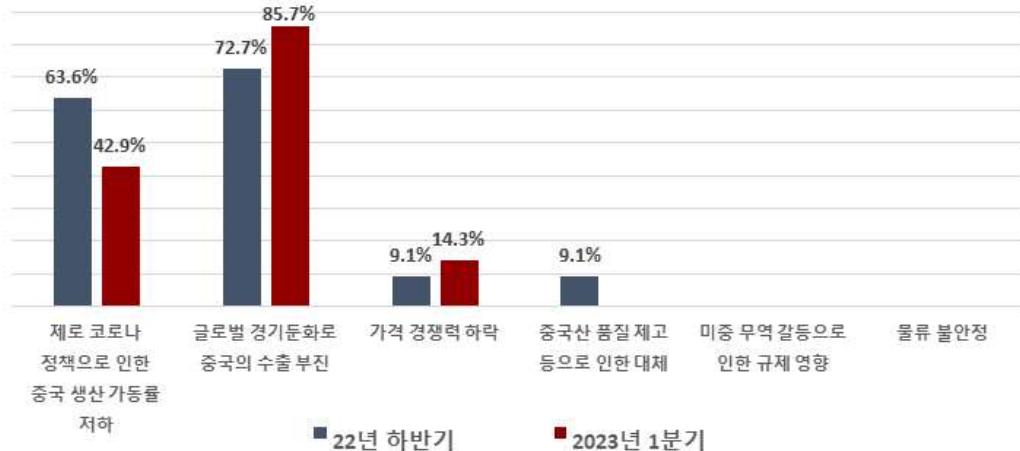


<그림42>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순위) :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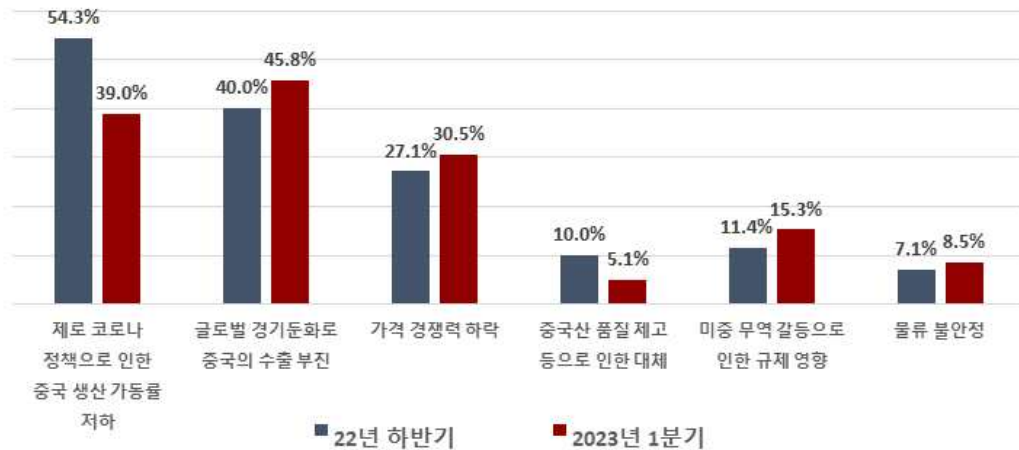


- 1+2순위 응답을 합계했을 때에도 대기업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에 대해 모두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을 가장 많이 응답해 중소기업보다 동 부분에 대한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3>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2순위) : 대기업



<그림44>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2순위) :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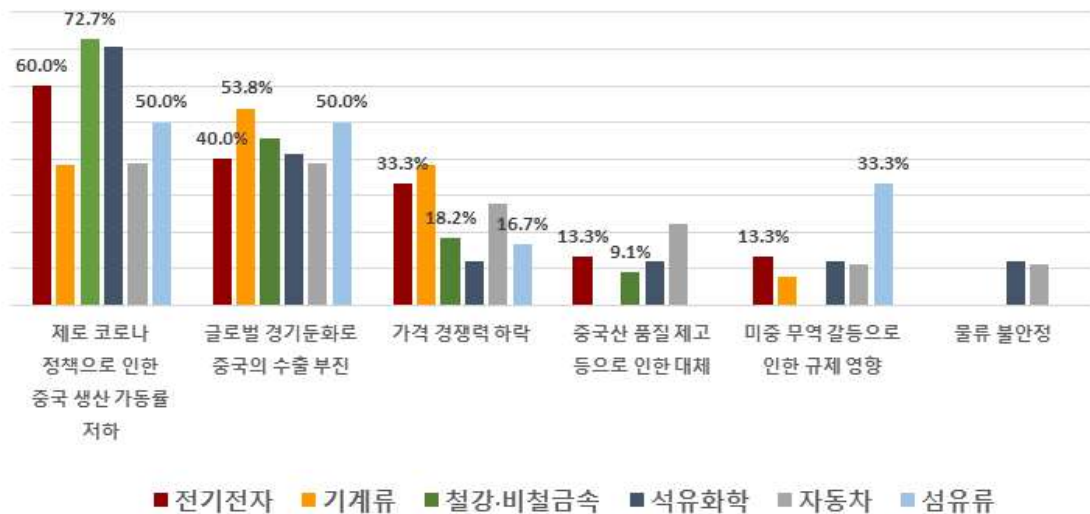
다. 산업별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 원인, 산업별로 차별화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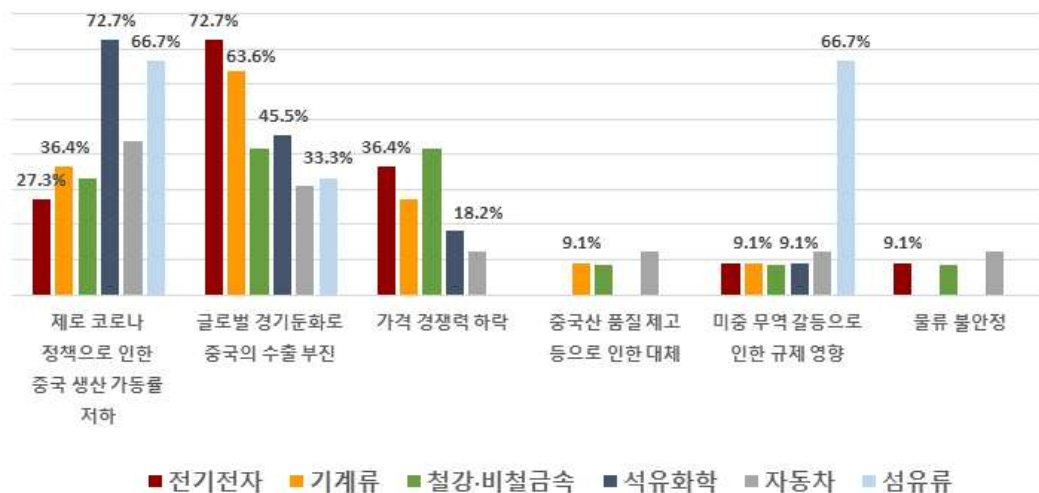
- 대부분의 산업에서 최근 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을 꼽았으나,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의 수출 부진 원인을 구분했을 때에는 각 산업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응답을 나타냄.
- 전기전자, 철강 기업들의 경우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영향을, 2023년 1분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을 응답
- 기계류 기업들은 두 기간 모두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석유화학 기업들은 두 기간 모두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영향이 컸다고 응답
- 자동차 기업들과 섬유류 기업들은 모두 2022년 하반기에는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과 중국의 수출부진이 모두 영향이 컸고, 2023년 1분기에는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영향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
- 섬유류 기업들의 경우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규제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각각 33.3%, 66.7%씩 답해 타산업과 차이를 나타냄.
- 미국이 2022년 6월부터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및 면제품이 포함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함에 따라 국내 섬유류 수출 기업들에 계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격 경쟁력 하락" 답변 응답률이 높은 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는 기계류(38.5%), 전기전자(33.3%), 자동차(27.8%), 철강(18.2%) 등이었고, 2023년 1분기에는 철강(41.7%), 전기전자(36.4%), 기계류(27.3%), 석유화학(18.2%)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등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전기전자**(33.3%→36.4%), **철강**(18.2%→41.7%)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2023년 1분기 동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아짐.
- **“중국산 품질 제고 등으로 인한 대체”** 답변 응답률이 높은 산업은 2022년 하반기에는 자동차(22.2%), 전기전자(13.3%), 석유화학(11.8%) 등이고, 2023년 1분기에는 자동차(12.5%), 기계류(9.1%), 철강(8.3%)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동 이슈는 **2022년 하반기에 비해 2023년 1분기 응답률이 떨어짐.**
- 기계류의 경우 **“중국산 품질 제고 등으로 인한 대체”(0%→9.1%)**에 대한 응답이 2022년 하반기에는 없다가 2023년 1분기에 처음 등장했으나, **“가격 경쟁력 하락”**(38.5%→27.3%)과 함께 살펴볼 경우 응답 수치가 낮지 않아, 기계류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 중국산 품질 제고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문제가 타 산업에 비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45>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2순위) : 2022년 하반기 산업별



<그림46> 중국 수출 감소 원인 (1+2순위) : 2023년 1분기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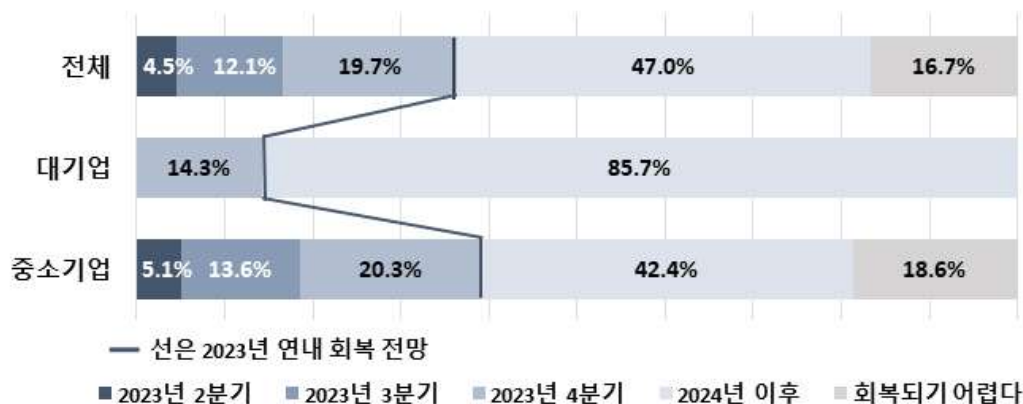
4. 수출 회복 시기 전망

가. 전체 기업 및 기업 규모별

중국 수출 회복 시기 전망, 2024년 이후 47.0%로 최대, 2023년 4분기 19.7%로 두 번째

- 수출 회복 시기에 대해 설문 대상 기업 47.0%가 2024년 이후를 답했으며, 두 번째로 2023년 4분기가 19.7%, 회복되기 어렵다 16.7%, 2023년 3분기 12.1%, 2023년 2분기 4.5% 순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85.7%가 2024년 이후, 14.3%가 2023년 4분기를 답해 2023년 4분기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은 42.4%가 2024년 이후, 20.3%가 2023년 4분기, 13.6%가 2023년 3분기를 답했으나,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기업도 18.6%나 존재

<그림47> 중국 수출 회복 시기 전망 : 전체 및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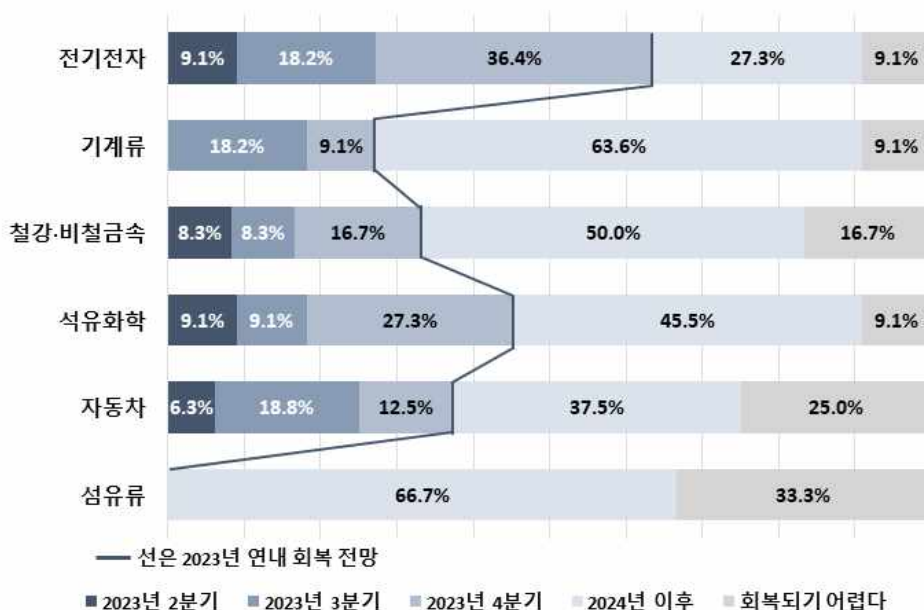
나. 산업별

전기전자는 2023년 4분기 회복 전망 최대, 섬유류·자동차는 회복 어려움 전망 높아

- 대부분 산업에서 2024년 이후 중국 수출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기전자 기업들은 36.4%가 2023년 4분기 회복을 전망해 연내 회복 전망 비율이 가장 높음.
- 전기전자 수출기업들은 2023년 4분기 회복 36.4%, 2023년 3분기 회복 18.2%, 2023년 2분기 회복 9.1%로 응답해 연내 회복을 전망한 비율이 63.7%로 가장 높았음.
- 전기전자 기업들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수출 부진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컸고,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은 중국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고 응답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중국 수출 경기와 연동이 많은 동 산업은 중국 수출 회복과 함께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으로 보임.

- 연내 회복 전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으로, 27.3%가 2023년 4분기 회복을, 9.1%가 2023년 3분기 회복을, 9.1%가 2023년 2분기 회복을 전망해 모두 **45.5%의 기업들이 연내 회복을 전망함**.
-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 모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에 비추어, 동 정책 해제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석유화학 분야는 최근 수출 물가 하락 영향이 크고 물량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수출 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추정

<그림48> 중국 수출 회복 시기 전망 : 산업별



- 기계류 기업들은 2023년 4분기 회복을 9.1%, 2023년 3분기 회복을 18.2%가 전망해 연내 회복 전망 비율이 27.3%로 섬유류를 제외하고 가장 낮음.
- 기계류 기업들은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수출 부진은 모두 중국 글로벌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면서 63.6% 기업들이 2024년 이후 회복을 전망했으나, 가격경쟁력 하락 및 중국산 대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 수출 회복 시기를 멀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섬유류 기업들은 연내 회복을 전망하는 응답은 없고, 2024년 이후 회복이 66.7%, 회복이 어렵다는 답변도 33.3%로 높아 회복 시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
-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단기간에 중국 수출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자동차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중국산 대체 진행이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 수출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25.0%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보임.

IV. 결론 및 시사점

2022년 하반기 이후 중국 수출 부진, 산업별 원인 달라 회복 가능성도 상이

-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의 산업별 중국 수출 부진 현황 및 유형은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

<표6> 산업별 중국 수출 부진 현황 및 유형

산업	유형	중국 수출 부진 현황	전망
반도체	수출 단가 연동형	- 중국 수출의 33.4% 차지(2022년), 비중 높아 착시 효과 유발. 수출 단가 변동에 크게 좌우 - 수출 물량 감소 요인보다는 단가 하락 요인으로 수출 부진. 2023년 수출 물량 회복 중	반도체 단가 등 수출 물가 상승시 회복 가능
석유화학 / 석유제품	수출 단가 연동 및 중국산 대체형	- 2022년 수출 부진은 물량 감소도 일부 있지만 수출 물가 하락 요인 강 - 2022년 이후 중국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중국산 대체 압력도 높은 상황	유가 등 수출 물가 상승시 일부 회복, 중국 설비능력 확대로 물량 감소 요인 존재
무선통신기기	중국 내수시장 지배력 축소형	-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 시장 지배력 축소 (한국 스마트폰 점유율 1% 내외) - 2021~2022년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단기적으로 회복 요인 미약
자동차 및 부품		-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브랜드 약진, 한국산 브랜드 점유율 2% 미만으로 하락 - 신에너지차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올해 폐지)	
디스플레이	품목·생산기지 이전형	-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낮은 LCD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OLED로 품목 전환 중 - OLED 세트기기 조립 공장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지역 변경	단기적으로 회복 요인 미약
일반기계 등 기계류	경기의존 및 중국산 대체형	- 경기 의존 성격이 강해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도 부진 -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도 동시에 이뤄짐.	중국 경기 회복시 수출 일부 회복 가능

- 중국 수출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를 상회하며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기업들의 성장과 품목 대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출 회복 요인이 떨어지는 품목도 발생

* 총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 : 25.1('19) → 25.9('20) → 25.3('21) → 22.8('22)

- 현재 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반도체 단가나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 물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 내 우리 상품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점** 등 산업마다 차별적 원인이 존재해 회복 시기를 전망할 때에도 각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도체와 같은 수출 단가 연동형은 수출 물가가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나,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등과 같은 중국 내수 시장 지배력 축소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품목생산기지 이전형 등은 수출이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
- 일반기계 등과 같은 경기의존 및 중국산 대체형이나 석유화학·석유제품과 같은 수출 단가 연동 및 중국산 대체형의 경우 중국 경기 회복, 유가 인상 등으로 일부 수출은 회복되겠으나 중국산 대체 속도에 따라 회복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설문조사 결과, 수출 기업들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중국 수출 부진에 대해 대체로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과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영향**으로 등으로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은 연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기업 비중이 높았으나, 기계류, 섬유류 기업들의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 중국산 대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7>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 부진 요인 및 전망 설문 결과

산업	중국 수출 부진 요인*		회복 시기 전망* (괄호 안은 연내 회복 전망 비율)
	2022년 하반기	2023년 1분기	
전기전자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2023년 4분기 (63.6%)
기계류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2024년 이후 (27.3%)
철강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가격 경쟁력 하락	2024년 이후 (33.3%)
석유화학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2024년 이후 (45.5%)
자동차 및 부품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2024년 이후 (37.5%)
섬유류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중국의 글로벌 수출 부진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기부진,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규제	2024년 이후 (0.0%)

* 설문조사 최다 응답 기준